

“전효숙 인준” 지역여론 감안 처리

한화갑 민주당대표 인터뷰

요즘 민주당이 연일 상승가를 치고 있다. 정치권 최대 이슈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의 결정적 키는 11석의 소수 야당 민주당이 쥐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정계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러브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한민(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조를 놓고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지역의 의구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만나 전효숙 후보자 인준과 한민 공조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었다.

한-민 공조 없어...한나라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내년 대선 독자후보 내 '민주당의 길' 걸어 갈 것

한 대표는 우선 “전효숙 현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5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전효숙 현재 소장 인사청문요청안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을 경우, 민주당의 최종적인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우선 지역여론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등 야 3당의 합의를 모두 수용한 데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더 이상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존재해 온 것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전효숙 현재 소장 후보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지역 여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 현재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조순형 의원이 ‘법사위가 지난 6~7일 실시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내용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청문회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절차적 문제도 해소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조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서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이 순천 출신인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 나름대로 활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공조와 관련, 한 대표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뿐인데 한나라당이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민 공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7대 총선 이후 어려웠던 상황에도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민주당은 재기에 성공했다고 강조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추후 정국을 독자적으로 헤쳐나갈 것”이라며 한민 공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두차례의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배를 알면서도 후보를 냈으며 이를 발판으로 17대 국회에 9명이나 진출했다”며 “모 자라도 당대를 위하여 않고 후대의 발목을 위해 쓰듯이 민주당은 당장의 이익 보다는 50년 전종의 정당으로서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길을 걸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민 공조 논란과 관련, 내가 주장한 ‘정치권의 창조적 파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관계없다”며 “창조적 파괴는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효숙 인준안 처리 국회 정치적 결단 내려야”

한총리 “국민 납득할수 있는 인사제도 필요”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중인 한명숙 총리(사진)는 24일(현지시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인준 파문과 관련, “국회가 고유권한인 동의를 행사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의권 행사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부결시키면 되고 그 반대라면 가결시키면 된다”면서 “결론이 어떻게 내든 정치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빨리 해결해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효숙 파문’ 책임소재와 관련, “정부가 국회와 동시에 여러가지를 면밀하게 짚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의 요구절차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임명동의안이 법사위 제출 절차를 밟은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사과요구에 대해서 “총리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떠난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또 낙하산 인사 논란에 언급, “대통령으로 당선돼 정권을 창출하면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 뒤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전제하듯 “부적격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 정부가, 만든 규정 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정권 때마다 불거지는데 매년 정권말기마다 감사가 어떻게 공기업이 어떻게 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지적하기 보다는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인사문제에 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바람직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인사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연합뉴스



한화갑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처리하는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조계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천기홍 회장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 갈등 봉합 국면

李대법원장 오늘 유감 표명
검찰·변협도 한 발 물러서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변호사 그룹의 3각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지법 순시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정중하게 유감 표명할 뜻을 밝혔고, 이에 검찰 수뇌부와 변협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법원장 퇴진 서명운동 등 2차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던 대한변협은 “26일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을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장 탄핵, 고소” 등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변협 하청우 공보이사는 “26일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을 지켜본 후 논평 등 추후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지난 23일 광주 지역 검찰 간부들과 산행에서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발언한 데 이어, 25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을 검찰 내부에서

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자중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방침은 발언 취지인 ‘공관중심주의’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켰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할 만큼 불필요한 법조 내부의 감정적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도 갈등 국면이 확산될수록 검찰 조서보다는 법정 진술이 중요하다는 공관중심주의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럴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관중심주의 정신에 입각해 최근 재판부가 검찰의 조서 증거를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은 수사에 애로가 많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변협도 대법원 간부들이 지난주 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부탁하는 마당에 무조건 대립각을 세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판사들 사이에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할 일이나”는 반발 기류가 있어 법원 내부의 동요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검찰과 변호사, 판사는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을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사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천안지청 박철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띄워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 은연 중에 퍼진 우월감을 너무 잘 표출했다”며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형사 처벌을 허용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집단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같아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靑, 소녀가장 등 추석 선물 추가 우송


“차·다기세트 적절치 않다” 여론 따라

청와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계각층 5천여명에게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우리 차(茶)와 다기세트를 선물로 보냈으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해당 선물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따라 새로운 선물을 선정해 추가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차 선물이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선물을 택해서 추가로 보내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로 전달될 선물은 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노 대통령의 추석 선물 내용이 발표된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된 기사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차가 필요한 선물이나’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는 실용적인 선물이 낫지 않느냐’는 등의 댓글이 올라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가 검토해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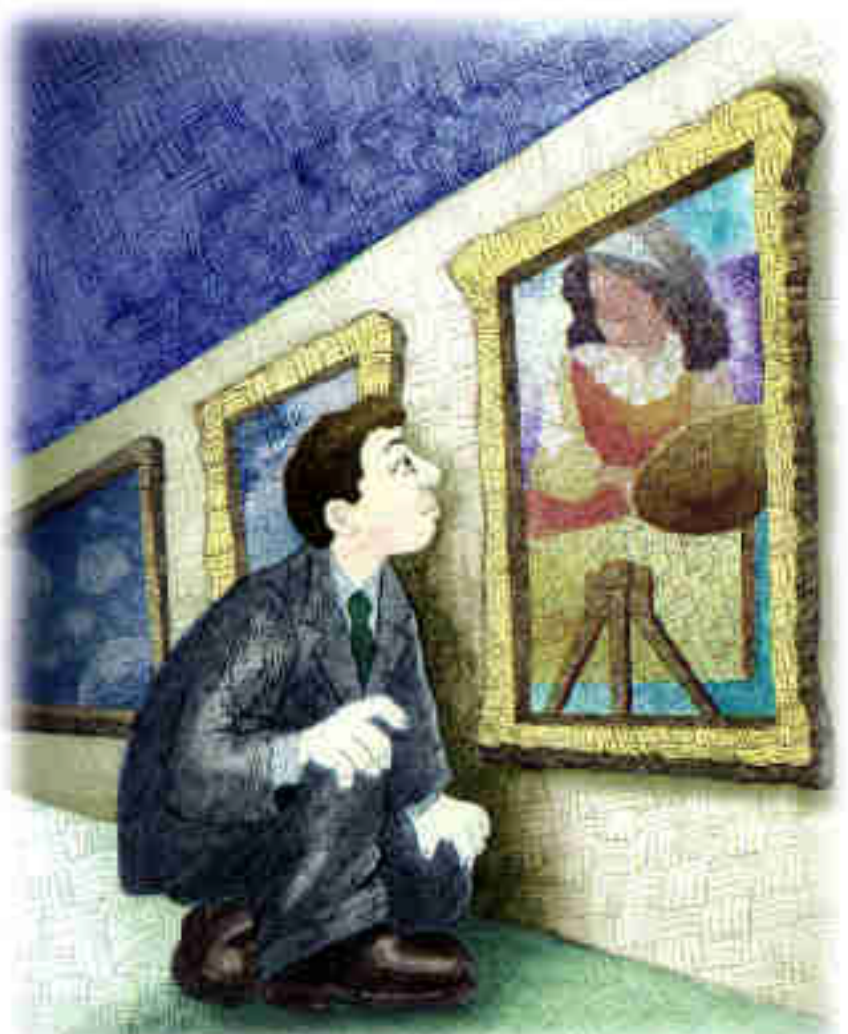
www.daekyo.co.kr

교육의 프로-대교




창립 30주년

“키를 낮춘 선생님”



어린이의 눈높이를 이해하려고 키를 낮춘 눈높이선생님,
 어른들의 규범과 사고를 강요하기 보다는 어린이의 세계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문화기업 대교,
 고객의 사랑으로 30년간 눈높이 사랑·눈높이 교육을 실현해왔습니다.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키워주는 교육의 프로 대교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룰 눈높이선생님을 모십니다.



눈높이선생님을 모십니다

- 부 문: 수리/어문/Yes Class
- 차 격: 4년제 대졸 이상, 전공-제한없음
- (Yes Class)선생님: 시·소설·기타·영문·수학·비즈니스선생님: 초등·미용·미술·가정·인생·18살부터까지
- 전용공방: 1차-서류심사 및 인터뷰, 2차-실제 회원관리 현장체험
- 접수방법: 전국 교육지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www.daekyo.co.kr)
- 접 수: 2006.10.17일(화)까지 ■문의처: 1568-1109, 080-222-0909(눈높이 무료상담)